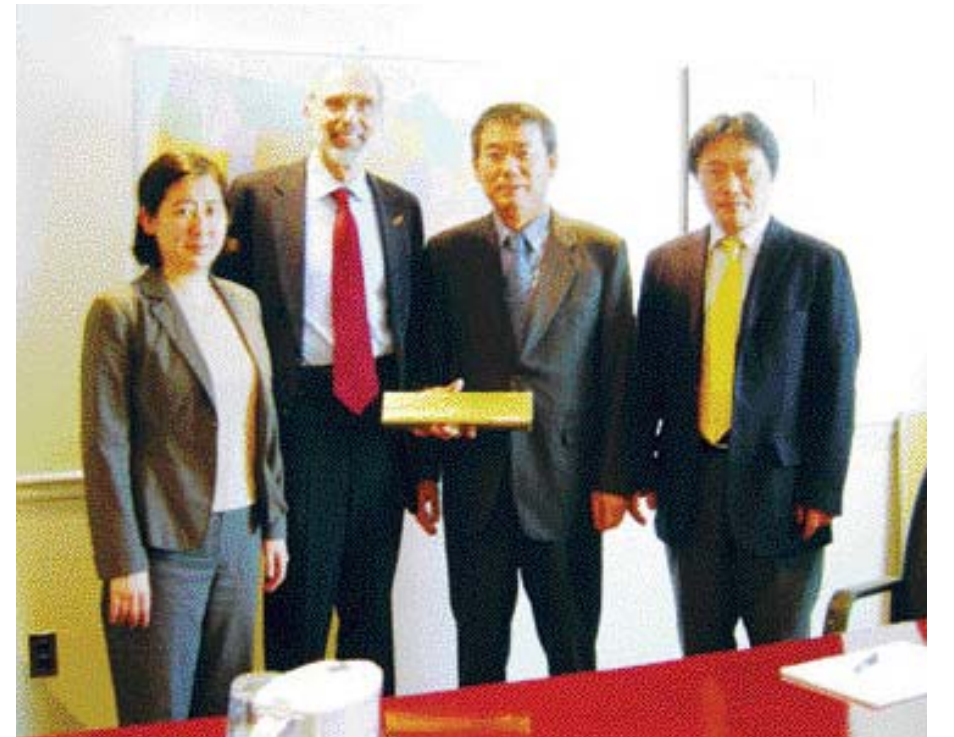




아트마켓이 뜬다
8 광주문진위의 미국방문기



“광주미술 세계시장 진출 타진”



현수정 뉴욕 통신원

워싱턴 입안자들 만나 문화예술 정책 도움

“판소리·김치 등 한국문화 경쟁력 충분하다”

옛 전남 도청 앞 하늘로 치솟는 물줄기가 상징하듯 광주는 항상 내적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다. 한국 현대사의 발전에서 광주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되는 차별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 1980년 5월 이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광주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또한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의 첫 비엔날레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도시가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다.

잘 알다시피 뉴욕은 다문화 도시다. 이 때문에 종종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대면할 기회가 많다. 그럴 때 광주출신인 필자는 그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다. 한국 민주화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예향, 미향 등 자랑할 게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의 위상을 말하다 보면 정말이지 ‘광주사람’이란 사실이 새삼 뿌듯하다. 그들 중에는 광주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광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긍지는 세계 어떤 도시, 누구를 만나도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힘이 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역작가들의 국

제무대 진출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한 광주 문예진흥위원회의 움직임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것 같다. 광주 문화예술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문예진흥위원회 오건택 위원장과 송진영 부장이 지난달 뉴욕, 워싱턴 D.C의 문화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역예술단체의 미국진출을 돕기 위해 온 문진위 일행은 뉴욕과 워싱턴의 문화예술기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다민족의 국가로 그 중심은 뉴욕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유산들이 집중되어 예술가들에게는 선망의 도시다. 문진위 일행의 첫 번째 활동은 뉴욕의 세계적인 미술관들을 돌아보며 이들 미술관의 운영실태 등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음은 올 가을 뉴욕에서 개최될 세계무용축제에 광주 현대무용단 파견을 위한 실무자 면담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 대표 관계자와 뉴욕 미술협회 지부장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다. 사실 뉴욕 한인사회는 이민자들로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향수는 있지만 실질

적으로 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광주의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중심도시의 역량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신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이미 2005년 퀸즈 미술관과 광주 시립미술관의 교류를 통해 광주는 국제진출의 가능성을 시도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이번 뉴욕방문을 계기로 광주 출신의 작가들에게 레지던스 기회나 상호교류 행사 등 국제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사실 광주는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지만 국제이벤트라는 점에서 지역 미술계와는 밀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지역 작가들이 세계 여러 도시의 문화 예술과 만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미술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 일정은 미국 정치의 일번지, 워싱턴이었다. 문진위 일행은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는 미국연방예술기금(NEA)과 전미예술위원회연합(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AA)을 방문하였다. NEA의 패트리스

워커 파월 부의장과 NASAA의 조나단 카츠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을 통해 미국 문화 정책의 주요 목적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미 한국문예진흥위원회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미국의 문화 예술 지원 정책’ 강연을 한 경험이 있었다.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현대국가로 발전되어 오면서 경제공황 시기부터 이미 예술가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1965년 설립된 NEA는 미국 의회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려고 만든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기구이다. 다민족 국가로서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역할의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설립됐다. 패트리스 워커 파월 부의장은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은 지역 사회가 스스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NEA는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고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매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지만 동시에 각 주의 자체 발전력, 문화적 성과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양국 문화정책 입안자들의 만남은 미국의 선진 문화정책을 듣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상호 문화정책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공유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 위원장과 송 부장은 뉴욕과 워싱턴의 문화 인사들과 만나면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판소리·김치·예술가들- 우리가 세계 시장에 들고 갈 자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단

미국 제1의 도시인 뉴욕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광주작가들과 문화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다. 뉴욕 맨하튼의 중심지인 유니언 스퀘어(왼쪽). 워싱턴 D.C의 전미예술위원회를 방문한 오건택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송진영(오른쪽) 부장

지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세계인들의 감각에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광주의 과제로 남았다.

2009년 봄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제 3의 정신(The Third Mind)”라는 전시가 있었다. 이 전시는 아시아의 문화적 반향이 미국의 문화발전, 특히 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름하는 자리였다. 이 전시에서 보여준 작품들을 보면 아시아 문화 전체에 있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크게 부족했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에서 아모리 주간에 맞추어 한국 국제 화랑예술제가 열렸고 아시아 문화예술주간에 아시아 갤러리를 탐방하는 미국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성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 작가 김수자의 유랑하는 보따리가 있듯, 서도호의 천으로 만들어진 청자 빛 한옥이 공중으로 부양되듯, 우리의 장단에 박수소리가 나고 박소빈의 용이 꿈틀거리고 이이남의 바편폭포의 물줄기가 세차게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는 2014년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면 세계인들이 아시아의 작은 도시가 문화를 위해 어떠한 모범들을 만들었는가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의 발전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열정과 민주 문화의 에너지는 광주인의 삶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 우리의 밝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뉴욕주주 독립큐레이터·미술사 박사)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명(姓名) 타고난 사주(四柱) 운 비결 수 없으므로
 이름(姓名) 바꿔 개명하면
 운명(運命)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개척하십시오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2-227-2555, 010-7671-5623

정환영 사장을 주도하는 기업

지티 주식회사

각 시·군 대리점 모집
 구로, 순천, 광양, 여수, 장성 제외
 062-371-7005
 011-601-7701